

#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17 Number 8 ● 8 2009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

## 신실한 다윈 숭배자들의 트로피

### [아이디]

4700만년 전에 살았던 인류의 조상이라고 알려진 화석 아이다



“인류의 빠진고리가 발견 되었대 요!” 지난 5월 생명과학 강좌를 듣고 있던 한 학생이 3장으로 된 영문 기사를 흥분하며 전달해 주었다. “드디어 인류의 빠진고리(missing-link)를 찾았다”는 제목이 달려 있었다. 성경의 역사를 사실로 믿을 뿐 아니라 지구과학 강좌를 통해서 빠진고리 화석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인류의 빠진 고리가 발견 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 성경 기록과 상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인류의 빠진고리라는 화석은 놀랄만큼 자세히 보존 된 화석이었다(화석 그림). 그 화석은 4700 만년 전의 영장류로 신생

대 제 3기 시신세(the Eocene) 지층에서 발견 되었다고 한다. 이 화석을 언론에 공개한 연구자들은 최신 X-선 기법을 동원하여 치아를 조사했고, 먹었던 음식물들도 알아 냈다고 하면서 빠진고리를 강조하기 위해 이 동물의 사람 닮은 점들을 소개한다. 발목, 정강이 뼈, 손뼉, 발뼉, 손목에

이어 얼굴은 원숭이보다는 사람을 닮았다는 등의 특징들을 죽 열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이 세계 유수의 과학저널인 내셔널 사이언스에 발표할 예정이며 이미 링크(Link)라는 책에 소개가 되었고 미국의 TV 다큐멘터리로 방영 될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이 화석 동물의 이름을 진화론자의 대부격인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을 높이기 위해 *Darwinius masillae*라고 학명을 지었다(masillae는 화석이 발견 된 독일의 지명 Messel에서 따 옴). 덧붙여서 그들은 한 연구자의 딸 이름을 따서 “아이다(Ida)”란 이름을 붙여 진화론도 강화하고 자기들의 발견이 더욱 효과적으로 광고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빠진고리 화석인 아이다에 대해서는 즉시 진화론자들의 반론이 나왔다. 듀크 대학의 고생물학자 리처드 케이(Richard Kay)와 시카고 대학의 고생물학자 칼럼 로스(Callum Ross)는 그들이 제시한 자료로는 그들의 주장을 지지할 수 없다고 하였다(<http://www.answersingenesis.org/articles/2009/05/21/ida-real-story>). 카네기 자연사박물관의 고생물학자 크리스 비어드(Chris Beard)는 이것이 빠진고리가 아니라고 단언하는 글 “왜 아이다 화석이 빠진고리가 아닌가?”란 제목의 글을 발표 하기도 하였다(<http://www.newscientist.com/article/dn17173-why-ida-fossil-is-not-the-missing-link.html>). 이 글에서 그는 아이다를 진화론적 계보에서 인류의 조상과는 완전히 무관한 여우원숭이 계열에 배치하고 있다(진화계열



그림 참고). 많은 전문가들은 아이다가 나무에 오르는 꼬리 달린 작은 여우원숭이(Lemur)와 매우 닮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은 진화론자들의 현혹시키는 광고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확실하지도 않고 전문가들의 검증도 제대로 받지 않은 내용을 일반인들에게 직접 발

표하게 되었을 때 수 많은 사람들 마음 속에는 사람이 진화된 동물임이 각인 된다. 그러나 그 이후 반론에 대해서 일반 대중은 거의 듣지 못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세상은 진화의 믿음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들은 세계 최고의 과학잡지에 연구 결과를 실을 것처럼 말하지만 자기들의 주장을 광고하는 것일 뿐 내셔널 사이언스는 이미 다른 책이나 기사로 일반에 알려진 연구물을 실어주지 않는 것이 상례다.

더 중요한 사실은 중간 화석이 없다는 사실이다. 다윈은 자기가 저술한 《종의 기원》 마지막 개정판(6th edition, 1872, p. 413)에서 “왜 모든 지질층이 중간고리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란

고생물학자는  
자기가 원하는대로  
화석이 말하게  
할 수 있다.



의심을 표했는데 그의 의심은 1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아니 의문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류 진화론자들은 그의 진화 이론을 버렸다. 1980년 사이언스에 실린 시카고의 진화론 학회 보고서(Science, Vol. 210, pp 883-887)에 의하면 다윈이 생각했던 점점 진화하는 방식으로 진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소진화의 방법으로 대진화를 설명할 수 있을까? 대답은 분명했다. 아니오.” 중간화석으로 진화론을 증명하려는 시도는 이미 포기했다는 말이다. (여기서 진화론자들이 소진화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는 변이일 뿐 소진화의 증거나 가능성조차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진화론자들은 아직도 다윈의 꿈을 버리지 않고 가끔 이상한 화석을 들고 나타나 빠진고리를 찾았다고 환호성을 지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진화론자들은 볼 것도 없이 결론을 내린다. “그 것은 빠진고리가 아니다.”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만약 그런 방식의 진화가 사실이라면 중간형태의 생물이 살아야 할 기간이 수 억년이므로 한 두 개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중간화석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속내를 잘 모르는 일반 대중은 고스란히 속고 마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호에 실린 “화석의 나이를 측정 못한다고?”에서 설명했듯이 그들은 화석의 나이가 4700만년 되었다는 것을 측정하지도 않고 사실처럼 말하고 있다. 그 화석이 발견된 Messel의 지층 나이도 결국은 측정한 것이 아니라 진화를 사실로 믿고 결정한 것일 뿐이다. 아이다 화석과 지층은 수천만 년 된 것이 아니다. 물론 위치(신생대 3기는 노아홍수 후의 지층임)로 보아 노아 홍수 후의 격변적인 사건으로 묻혔을 것이다.

다윈의 신실한 추종자들이 환호하고 있는 트로피 아이다는 라마피테쿠스, 네브라스카인, 자바인, 루시, 래틀리 발자국의 주인공처럼 서서히 그 빛이 바래질 것이다. 금빛 물감으로 칠해진 진짜 트로피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아이다나 다른 동물의 후손이 아니라 자랑스런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이란 사실이 마음 판에 새겨지고 기억 되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 않는다.





## 화석의 나이를 측정 못한다고?

**창조과학** 프로그램에서 참석자들의 머리가 가우똥해질 때가 있는데 강사로부터 “화석은 연대측정 대상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이다. 대부분 ‘설마 그럴까?’ 라는 표정을 짓는다. 심지어 과학 전공자들조차도 지질학자들이 탄소연대측정법으로 화석의 나이를 측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지질학자들은 탄소를 가지고 화석의 나이를 측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연대측정에 사용되는 방사성 탄소인 탄소14의 “적은 양” 때문이다.

탄소연대측정법의 원리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떤 유물에 남겨진 탄소14의 양을 환산해서 그 나이를 계산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유물에 탄소14의 양이 많으면 죽은 지 덜 오래된 것이며, 그 유물에 탄소14의 양이 적으면 죽은 지 더 오래된 것이다. 왜냐하면 탄소14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유물에서부터 질소 가스로 변해 날라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유물 속에 측정 가능한 탄소14가 남아있지 않다면, 당연히 그 유물의 나이도 측정할 수 없다.

오늘날의 대기 중에 탄소14의 양은 아주 적다. 안정동위원소인 탄소12와 비교하면 1/조 (1,000,000,000,000)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식물과 동물은 살아있을 동안에는 두 탄소가

오늘날 **탄소14 / 탄소12**의 비  
**1 : 1조**  
**1 : 1,000,000,000,000**

같은 비율로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그 몸 속에 대기와 동일한 1/조 라는 비율을 유지한다. 그러나 일단 생물이 죽은 다음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질소 가스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

에 그 시체 안에서의 탄소14의 양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이 원리에 의하면 탄소14의 양이 처음부터 아주 적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유기물에서 사

라져버리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50,000년이 지난 유기물에는 측정 가능한 탄소14가 남아있기 어렵다. 그러므로 진화론자들은 50,000년보다 오래되었다고 여기는 유기물에는 탄소연대측정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화론자들은 자신들이 수억 년 되었다고 여기는 삼엽충 화석이나 수천만 년 되었다는 공룡 화석을 탄소로 측정할 리 없다. 심지어 수백만 년 되었다며 인류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그 연대를 탄소 방법으로 측정하지 않는다.

가장 존경 받던 지질학자였던 데렉 에이거가 지적한 다음 말은 의미 있는 지적이다. “어떤 유명한 고생물학자도 발견된 층에서 그 화석의 나이를 결정한 경우는 없다.<sup>1</sup>” 실제로 연대측정법 중에 유기물을 측정하는 유일한 방법이 탄소이기 때문에 탄소측정이 불가능하단 말은 진화론자들이 화석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과 같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 진화론자들은 측정도 하지 않았는데 그 화석이 그렇게 오래되었는지 어떻게 알았던 말인가? 이는 진화론자들을 붙잡고 있는 강력한 편견 때문이다. 바로 진화론자들은 화석이 오래되었다고 하는 편견을 먼저 갖추었으며, 이 편견이 화석의 나이를 측정조차도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 탄소14의 양을 측정하면 어떨까? 놀랍게도 모든 화석에는 한결같이 탄소14를 함유하고 있다. 즉 위에 언급된 수십억 년에서 수백만 년 되었다는 삼엽충, 공룡,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측정하면 진화론적 예상대로 탄소14가 없어야 하는데 모두 측정될 만큼 충분히 탄소14를 갖고 있다. 이를 역으로 말하자면 진화론자가 사용하는 탄소측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화석은 그리 오래되진 않았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는 수십억 년 되었다는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암석(예를 들면 탄산칼슘으로 구성된 대리암)에서도 탄소14가 측정된다. 탄소로만 구성된 흑연이나 다이아몬드도 모두 진화론자들이 수십억 년 되었다고 하였지만 모두 탄소14를 함유하고 있다.

위의 측정 가능한 탄소가 함유됐다는 것 자체가 그 유물이 탄소연대측정의 상한선인 50,000년 보다는 젊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된 수백만 년에서 수십억 년 되었다는 모든 화석과 이들 암석들은 연대측정법을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면 50,000년 보다는 젊다고 말해야 한다. 사실 이런 수만년의 수치는 과학자들이 지적했듯이 과거에 지구자기장이 지금보다 강해서 과거에는 대기 중에 탄소14의 양이 적었거나, 대부분의 화석이 노아홍수 격변 때 형성되었으며 홍수 당시 화산폭발에 의해 발생한 다량의 탄소12로 인해 탄소14의 상대적 농도가 낮아졌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수천 년의 연대를 지지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탄소동위원소 연대측정 때문에 성경의 수천 년의 성경역사가 부담이 된다면, 그런 걱정은 벗어버려도 된다. 이는 그 측정 원리와 적용에 대한 한계를 이해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과학자들이 수천에서 수억 년 오래 되었다고 측정할 수 있는 대상은 용암이 굳어서 된 화성암 밖에는 없는데 이에 대한 진실은 다음 호에 다룰 것이다).

1. Ager, D. "Fossil Frustrations," New Scientist, v. 100 p. 425, Nov. 1983.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 ACT News



## 빙하시대 탐사여행 성료

지난 6월 4-6일 빙하시대 탐사여행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요세미티와 세코이아 국립공원뿐 아니라 395번 도로에 펼쳐진 Mono Lake, Panum 분화구, Owens 협곡, Alabama 언덕 등을 경유하며 노아 홍수 전기와 후기에 이어 빙하시대까지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탐사여행은 빙하시대로는 처음 공개 모집하였는데 만원을 이루는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성원에 힘입어 앞으로 매년 6월 중순에 빙하시대 탐사여행을 출발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매년 12월 탐사여행을 떠났던 샌디에고 한빛교회(담임목사 정수일)에서 많은 교우들이 단체로 참석했습니다. 오는 7월 31일 ANC 온누리교회, 9월 14일 CRC 목회자, 9월 28일 일본인 교회 등 빙하시대 탐사여행이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 세계로 선교회 탐사여행

6월 7-10일 세계 여러 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세계로 선교회 소속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이 월 드미션대학교 졸업식 후에 창조과학탐사여행에 참석하셨습니다. 일본,독일, 아프리카와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열정적인 선교사님의 열정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캠퍼스 사역이 많은 세계로 선교회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신 일들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번 탐사여행은 시애틀형제교회 탐사여행과 겹친 관계로 최우성 선교사가 인도 하였습니다. 발췌 된 여행 간증은 13페이지에, 편집되지 않은 간증문들은 홈 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 시애틀 형제교회 탐사여행

지난 6월 8-11일 시애틀 형제교회(담임목사 권준)의 탐사여행을 마쳤습니다. 이번이 일곱 번째 탐사여행입니다. 특별히 이번 탐사여행은 형제교회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인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에 이어 열려서 더욱 뜻 깊었습니다. 형제교회 교인뿐 아니라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본국의 종교교회(담임목사 최이우)와 이형원 목사님(서부교회) 내외도 참석하셨습니다, 모두 내년에 교회 단위로 창조과학 탐사여행과 세미나를 계획하였습니다.

## 한미준 수련회를 탐사여행으로

6월 15-18일 한미준(한국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 김인중) 목사님들의 수련회를 탐사여행으로 가



빙하시대(위)  
세계로선교회 그랜드캐년  
Visitor Center에서(가운데)  
시애틀형제교회, 그랜드캐년에서  
(아래)





일본 복음화에 귀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이 세미나가 더 나아가 탐사여행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는 11월 말에는 동경에서 한일 대학생 연합수련회가 열리는데 이곳에서도 이재만 선교사가 강사로 초청되었습니다. 한일 대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사실과 성경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는 9월 말에는 일본인들을 위한 빙하시대 탐사여행도 출발합니다. 이제까지 3차에 걸쳐 일본인 탐사여행이 있었는데 그때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팀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인 탐사여행이 시작된 이래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 드립니다.

### 창조과학학교

시카고 8기 창조과학학교가 지난 6월 15일에 풍성한 은혜와 간증 가운데 종강을 하였습니다. (오른쪽 간증 참고)

시카고 지역의 제 9기 창조과학 학교는 9월 14일부터 10 주간 삼버그침례교회(담임목사 김광섭)에서 열리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847-845-5368이나 630-400-6114 혹은 tyi@sbcglobal.net으로 연락 바랍니다.

7월 현재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창조과학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대흥장로교회에서 열리는 창조과학학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회(310-719-2244)나 저희 사무실로 미리 연락 바랍니다.

### 미주복음방송의 창조과학 칼럼

지난 수년간 미주복음방송에서 인터뷰 형식으로 방송되었던 창조과학 시간은 중단되고 지난 6월부터 매주 목요일 4시 최우성 박사의 창조과학 칼럼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청취와 진리 전파를 위해 기도를 부탁 드리고 후원도 부탁 드립니다.

## 7차 유학생 탐사여행

내년 1월 4-6일 7차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출발합니다. 순복음 라스베가스 교회(담임목사 강일진)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며 참가비는 \$70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창조과학 선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조과학학교를 통하여 말씀을 더 확실하게 이해 할 수 있게 되었고, 말씀이 인용될 때 마다 그 말씀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신비한 기능을 가진 각 종 동물들, 정교한 신체의 구조, 온 우주 만물, 특히 엄청난 기능의 태양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음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자료들이 소개될 때 마다 너무나 감동적이었으며, 노아 홍수의 증거로 높은 히말라야 산 같은 곳에서도 다량의 물고기들의 화석이 발견되고, 대협곡의 형성과정을 설명해 주실 때 “아! 그랬겠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7개 단추로 잘 정리해 주신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더욱 나의 믿음이 자라서 나의 생각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전적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제 배운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배운 지식이 내 것이 되어서 전도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과학을 만나게 된 것이 저에게 큰 행복이었습니다.

시카고 8기 창조과학학교를 마치면서,  
*헬로섬교회 박혜옥 사모*



## 세계관 전쟁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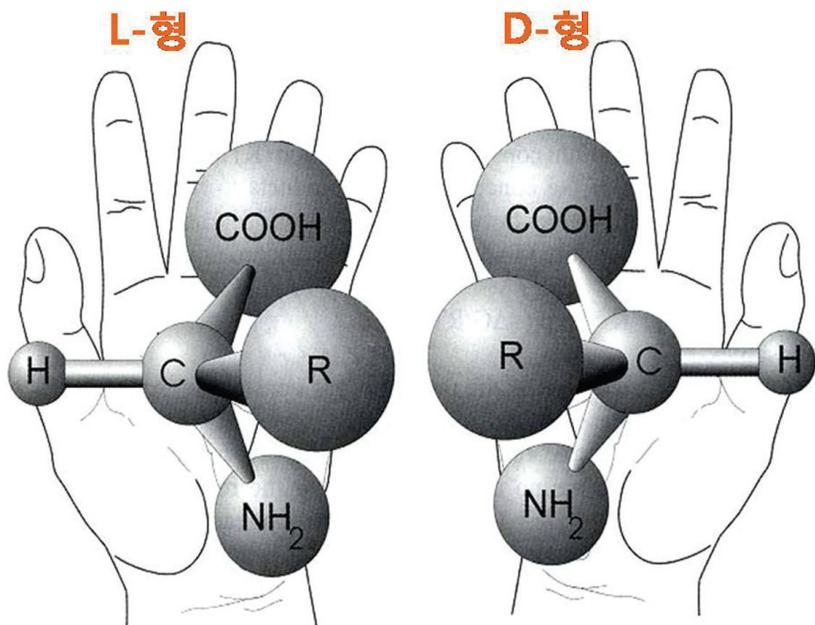
**자연현상에** 의한 생명 발생이 과학적인 증거와 모순 되므로 밀리는 비현실적인 초기 조건(무산소와 엄청난 양의 에너지 공급)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이론에 대해 할 말이 더 있다. 아미노산을 만드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진짜 어려운 일은 올바른 형태의 아미노산으로 올바른 복합체를 만드는 것이다. 2000가지 이상의 아미노산이 있는데 단지 생명에 필요한 것은 20가지 밖에 되지 않는다. 더욱이 각 아미노산을 형성하는 원자들은 두 가지의 기본형태로 모양을 만들고 있다. 이것이 왼손형과 오른손형이라는 말이다. 사람의 손과 비교해 보자. 각 손마다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네 손가락과 엄지), 그러나 손은 서로 다르다. 한 손의 엄지는 오른 쪽에 있고 다른 손의 엄지는 왼쪽에 있다. 이 두 손은 거울에 비친 모습이다. 우리 손처럼 아미노산도 두 가지 형이 존재한다. 똑같은 원자

## 자연현상으로 생명의 기원을 설명 할 수 있을까?(2)

들(구성물질)로 되어 있으나 서로가 거울로 비친 이미지다, 결국 왼손형과 오른손형의 아미노산이다. 좌우형이 있는 물질은 카이랄(Chiral)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희랍어의 “손(hand)”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생명체에 있는 단백질의 모든 아미노산은 100% 왼손형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형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어느 단백질에 단 하나의 오른손형 아미노산이 들어 있다면 그 단백질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 되고 말 것이다. 어느 화학박사가 말하기를

생명체의 많은 화학 물질들은 두 가지 모양 즉, 왼손형과 오른손형으로 되어 있다. 생명은 모든 동일한 모양(단일형)의 기본 구조 단위의 복합체이다 - 단백질



왼손형 아미노산과 오른손형 아미노산 중에서 모든 생물학적인 단백질은 왼손형 아미노산으로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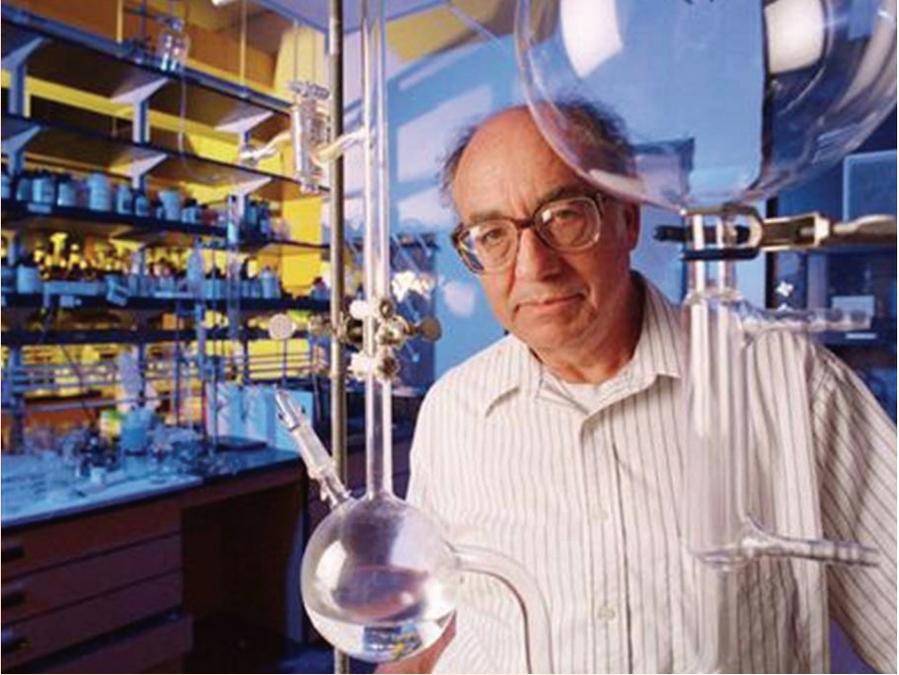
질은 왼손형 아미노산으로만 되어 있다.... 그러나 마치 가상적인 원시 수프경우 처럼 아무 장치가 없는 방치상태의 화학반응은 좌우형이 각각 반반씩 섞인 라세미(racemates) 상태를 만들 것이다.<sup>1</sup>

기초 화학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한다.

아주 놀라운 사실은... 동물이나 고등 식물이나 박테리아, 이끼, 심지어 바이러스로부터 채취 된 단백질을 연구해 본 결과 이들이 모두 L-형(왼손형)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sup>2</sup>

많은 교과서나 잡지에서 느끼는 공통된 인상은 밀러와 다른 과학자들이 생명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만드는데 성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교과서나 대중 매체는 과학자들이 만들어 낸 것은 생명이 생기기에는 결정적으로 장애가 되는 좌우형의 혼합체라는 것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좌우형 아미노산이 서로 결합하는 것은 일반적인 성향이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왜 생물학적인 단백질은 모두 왼손형 아미노산으로만 되어 있는지를 모른다.

(오직 왼손형 아미노산만) 선택된다는 이유도 불가사의이고 계속되는 논쟁의 주제다.<sup>3</sup>



2007년 5월 23일 밀러 박사의 죽음을 알리는 한 기사는 “실험실에서 생명의 비밀을 추구하던 과학자가 죽다” 라는 제목을 통해 그의 연구가 부질없었음을 전해주었다.

발달생물학자인 조나단 웰즈는 말하기를,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전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러-유레이 실험은 계속 진화론의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인즉 더 이상 좋은 이론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진실을 듣고 있기보다는 과학자들이 생명근원의 첫 발 걸음을 실험적으로 증명해 낸 것 같은 잘못된 인상을 조장 하고 있다.<sup>4</sup>

밀러의 실험은 생명의 기본단위(원손형 아미노산만)를 만드는데 성공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는 여전히 생명이 자연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생물학 교과서에 쓰인 다음과 같은 말은 밀러가 실험에 성공한 것 같은 잘못 된 인상을 학생들에게 주게 된다.

초기 대기권(암모니아, 물, 산소, 메탄 가스)을 재생하여 전기방전(번개)을 그 혼합물에 통과 시킴으로 밀러와 유레이는 아미노산같은 유기물질이 자연적으로 생성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 했다.<sup>5</sup>

첫째로, “증명했다”는 표현을 보라. 밀러와 유레이는 생명의 기본 단위는 그

런 조건에서 만들어 질 수 없다는 것 밖에는 증명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둘째로, 교과서는 대기권에는 산소가 항상 있었다는 다른 증거를 전혀 무시하고 있다. 셋째로, 교과서는 밀러가 잘못 된 아미노산(좌우형의 혼합물)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밀러의 실험(그리고 그 후의 모든 실험도)은 단 하나의 생물학적인 단백질도 만들어 내지 못했다. 하나님만 생명을 시작할 수 있다.

출처 : War of the Worldviews (2005), Answers in Genesis

● 이 책의 다른 부분은 [www.HisArk.com](http://www.HisArk.com)의 “세계관 전쟁” 아이콘을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1. Sarfati, J., In Six Days, p. 82, 2000.
2. Pauling, L., General Chemistry, Third Edition, p. 774, 1970.
3. Shapiro, R., Origins, p. 86, 1986.
4. Wells, J., Icons of Evolution, p. 24, 2000.
5. Miller, K., and Levine, J., Biology, 2000.

### 15쪽의 세계로 선교회 탐사여행 간증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의미 있고 좋은 탐사여행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 일본에서 진화론의 헛된 믿음에 빠져 그것을 근거도 없이 그대로 받아 들이고 있는 사 람들에게 복음과 함께 전해 나가길 원합니다. -김인숙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저는 아저씨를 좋아해요(조금). -백하민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서 잘못된 그 동안의 가르침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창 조과학선교회 사역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반대 세력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부 르심으로 알고 소명의식으로 잘 감당하셔서 많은 참가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계기를 만 들어 주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고 이번의 교훈을 목회에 연결시키겠습니다. -최준모 목사

최 박사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귀중한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더욱 번창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진화론의 허구성을 전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겠 습니다. -이미숙

## 세계로 선교회 탐사여행 간증문(6/7~6/10, 2009)

진화론자들을 창조과학 탐사여행으로 초청하면 좋겠습니다. ... 노아홍수 흔적인 협곡들의 자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창조와 남겨두신 사랑의 메시지를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종임 목사

창조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사실을 보고, 배움더 많은 사람이 창조의 사실을 알도록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 -안창호 목사

... 그 광대한 아름다움의 이면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하나님의 은혜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 너무 감사합니다. 대학생 사역에 유용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 -안창규 목사

“처음이 좋았다”라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 이렇게 크고 뚜렷한 노아홍수의 흔적을 남겨 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겸비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창조과학 탐사여행이었습니다. ... -서명호 목사, 독일

창조과학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의 흔적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을 믿었지만 이렇게 과학적 이론과 증거를 통해서 확증해주심에 놀랍고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 -박중환 목사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찾아와서 볼 수 있는 미국이라는 땅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엄위하심, 공의로우심을 목도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대속하시고 구속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복음을 위해 달음질하며 살아 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 이양우 목사

이번 여행을 통해 사단의 계락을 알게 되어 더욱 담대히 영적 전투를 해나가야 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진화론의 교묘한 속임수에 속아온 나 자신의 모습과 무지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그 증거들을 사역 속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적극적으로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 -목창명 목사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영광을 새삼 깊이 깨달았습니다. 창조과학선교회의 최우성 박사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에 대하여 세심하게 사실을 가르쳐주심에 대하여 더

깊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굳어졌으며, 앞으로의 삶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믿음을 갖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 백갑승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 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금번 탐사여행을 통해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이고 교만하고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과 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성경을 통해 그리고 과학적 방법을 통해 더 합리적이고 조화있는 이론을 듣고 실제 현장에서 돌아보며 창조와 지구, 인류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과학선교회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백인천 목사

하나님께서 창조과학선교회를 만드신 이유를 이번 여행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 이번에 가르침과 실제 현장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창조 꽃이 되게 하셨고, 노아홍수 때 피조물이 함께 인간과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중요성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내 주셨듯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천국에서 함께 거할자로 계획된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인간의 중요성을 알고 마귀에 속아 있는 영혼들을 구속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철수 목사

내 인생에서 잊지 못할 추억의 하나가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지식을 담아갈 수 있어서 기쁩니다. 엄마, 아빠 따라와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참가하고 더더욱 하나님의 놀라움과 경외로움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또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세상이 되도록, 전도와 사역에 힘쓰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배워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인천, 김인숙 딸 백하영

처음 미국에 와서 사람들이 한번은 가고 싶어하는 그랜드 캐년에 가서, 최우성 박사님으로부터 창조과학에 대하여 들었어요.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과학적으로 설명을 잘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학교에서 진화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또 작문을 쓸 때 잘 설명할 수 없었는데 최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 잘 설명할 것 같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원희, 김경숙 딸 박의주, 일본

처음 미국에 와서 “와! 굉장히 크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랜드 캐년,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 캐년에 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예요. 우리 친구들이 “사람은 원숭이였어!” 라고 말할 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이유를 몰라서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최 박사님으로부터 과학에 대해 듣고 나서 사람이 원숭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어서 친구들한테 잘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박원희, 김경숙 딸 박의진, 일본

... 창조과학선교회의 사역은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닫습니다. 일본에서도 많은 대학생들이 이 귀한 진리를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꼭 일본에도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다리 역할 부탁드립니다. ... - 박원희, 일본

2009년 ACT Schedule

- 8/2 창조과학학교(최우성), ANC 온누리교회, CA
- 8/6-8 창조과학 탐사여행(생수의 강 선교교회, 562-653-0168)
- 8/9 창조과학학교(이재만), ANC 온누리교회, CA
- 8/9 주님의 영광교회 새가족(최우성), LA, CA
- 8/10-12 창조과학 탐사여행(터헝가 소망장로교회, 818-331-2481)
- 8/10-11 Santa Maria 믿음장로교회 Youth(최우성, 805-266-2052) Santa Maria, CA
- 8/13-15 창조과학 탐사여행(사랑의 빛 선교교회, 213-381-1390)
- 8/17-24 일본 창조과학회 (이재만) Tokyo, Japan
- 8/27-29 창조과학 탐사여행(W.LA 온누리교회, 714-944-3131)
- 8/28-9/6 고파테말라시티 및 쉐라 (이동용, 630-400-6114), Guatemala
- 9/5-7 창조과학 탐사여행(LA 온누리교회, 213-382-5658)
- 9/9 창조과학학교/대흥장로교회 (이재만, 310-719-2244) Gardena, CA
- 9/11-13 시라큐즈 기쁨의 강 교회(세미나, 이재만, 315-727-8111), NY
- 9/13 주님의 영광교회 새가족(최우성), LA, CA
- 9/14-16 방하시대 탐사여행(CRC 목회자, 562-882-9191)
- 9/16 창조과학학교/대흥장로교회 (이재만, 310-719-2244) Gardena, CA
- 9/18-20 유타 교회 협의회 (이재만) Salt Lake City, UT
- 9/21-23 창조과학 탐사여행(Fuller 신학생, 213-381-1390)
- 9/23 창조과학학교/대흥장로교회 (이재만, 310-719-2244) Gardena, CA
- 9/25-27 본한인교회 (세미나, 이재만, 905-881-2999), Canada?
- 9/26 샌디에고 창조과학박물관(최우성, 창조과학학교 310-719-2244) Gardena, CA
- 9/28-30 방하시대 탐사여행(일본인 교회, 213-381-1390)
- 9/30 창조과학학교/대흥장로교회 (최우성, 310-719-2244) Gardena, CA
- 9/28 주님의영광교회 새가족(최우성), LA, CA
- 10/2-4 뉴욕 맨하탄 선교교회 (세미나, 이재만, 718-321-7800), NY
- 10/6-8 창조과학 탐사여행(Jama, 213-381-1390)
- 10/7 창조과학학교/대흥장로교회 (최우성, 310-719-2244) Gardena, CA

● 다른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